익산형 출산 지원, 전국 확대

소득 제한 없이… 난임진단 검사비·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올해 신설

익산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익산시는 올해 32억 5,886만 원을 투입해 난임 진단·시술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정부 지원 규정이 확대되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난임 시술 지원을 받게 됐다.

시는 앞서 2021년부터 소득 기준으로 인해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에도 시 자체 사업을 통해 똑같은 혜택을 지원해온 바 있다. 이 같은 시의 선제적 지원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이에 올해부터 익산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정부 지원 25회에, 전북형 추가 지원 사업 2회를 더한 연 최대 27회(인공수정 5회 포함)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지원 단가가 각각 인상됐다. 기저귀는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80% 이하 둘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어 첫째아 지원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다만 시는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첫째아와 80~100% 둘째아 이상 가구에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기존 15~25일의 지원 기간을 15~40일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익산시는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건강관리비를 모든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난임진단 검사비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됐다.

시는 6개월 이상 익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중 올해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 부부당 1회 최대 30만 원의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부부에게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난 13일 군산 콘텐츠팩토리에서 2023년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지역혁신 자율과제로 선정된 'K-컬쳐 혁신대학의 지역동행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군산의 낭만을 기억하다'

군산시-호원대,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발대식 개최

지난 13일 군산 콘텐츠팩토리에서 2023년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혁신 자율과제로 선정된 'K-컬쳐 혁신대학의 지역동행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의봉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최부헌 호원대학교 자율사업단장, 군산시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학생 및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호원대학교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4백만 원이다.

K컬쳐 혁신대학인 호원대학교는 새로운 시니어 소비자로 주목받는 욜드(YOLD=YOUNG+OLD)세대를 새로운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키는 '청년과 동행하는 시니어 로컬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을 추진하며, '군산의 낭만을 기억하다'를 테마로 군산 전역의 역사와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영상으로 만드는 영상 촬영 및 편집 특화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군산시 다문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아동요리지도사 과정, 한식 디저트 크리에이터 창업전문가 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호원 브릿G(Gunsan)콘텐츠' 프로그램을 진행, 호원 잡(job)브릿G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사업을 호원대, 군산 콘텐츠팩토리에서 2024년 2월까지 추진한다.

호원대학교 정의봉 산업협력단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K-컬쳐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한 호원대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혁신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K컬쳐 사업을 미래먹거리로 성장시켜 시니어와 청년층의 창업, 취업 및 정주 여건 조성의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김봉곤 문화관광국장은 "지역혁신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대학-지자체-학생 등을 아우르는 성공적인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센터·회원 공동세일전

골목상권 회복·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

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운영하는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센터')가 '센터&회원 공동세일전'을 연중 진행한다.

'센터&회원 공동세일전'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물가 안정 기여를 위해 도입된 안심물가제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슈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인하를 위해 추진된다.

세일전은 센터와 참여업소가 공동으로 매월 1회 추진하며, 센터에서 월 1회 최저 마진으로 세일전 상품을 기획하고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품목별 판매 상한가를 설정하여 판매하면, 참여업소(골목슈퍼)는 세일 상품을 판매 상한가 이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센터에서 매월 두 번째 화요일 또는 수요일부터 참여업소에 세일전 상품을 공급하므로, 소비자는 매월 둘째주에서 넷째주 사이 참여 업소를 방문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세일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업소별 판매상황에 따라 취급품목이나 세일기간은 다를 수 있다.

또한, 매월 세일 품목은 다르지만 월별·시즌별 주요 판매상품 위주로 기획하기 때문에 세일전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필요한 상품을 적기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월중 세일 상품은 농심 신라면 멀티(5입) 등 9개 품목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공급됐으며, 참여업소에는 '안심물가제 참여업소' 표찰이 배부되므로 표찰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슈퍼들과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안심물가제를 통해 골목슈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농촌지도사업 추진… 농업 경쟁력 강화·소득 증대

익산시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익산시는 올해 '농촌지도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을 16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농촌지도사업은 인력 육성과 귀농·귀촌 등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8개 분야 사업으로 이뤄져있다.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 등 57개 사업에 총 사업비 55억 2,400만 원이 투입된다.

중점사업으로는 급변하는 농업환경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청년 농업인 드론 지원 △청년 농업기계 자율주행 기술 도입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 등이 있다.

또한 △농산물 가공과 농촌체험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중소형 농기계 지원 △고구마 육성 품종 보급 △우량 딸기묘 생산 등 농업인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높인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농촌 인구 유입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소득사업, 생산기반 지원 등 다양한 귀농 정책이 마련돼 있다.

사업대상자는 현장 심사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오는 2월 개최되는 농업산학 협동심의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익산시탕장학재단이나 나눔 공간에 기부활동을 했거나, 자원봉사자, 정부·지자체 상 수상자 등의 경우 선정 시 가점이 주어진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2년 연속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

군산시가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가 주관하는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재선정됐다.

군산시는 국비 1억800여만원을 확보했으며, 총 사업비 2억1,700만원(국비 108.5백만원, 시비 108.5백만원)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교육부가 지역 기반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과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 시는 계속 지원 48개 지자체 중 사업비가 다섯 번째로 많다.

2024년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주요 추진 사업은 2023년도 추진결과 만족도가 높았던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어울림 한마당을 확대 운영하며, 신규 사업으로 거점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동아리 '용기종기' 배움터, 발달장애인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는 아트콜라보 운영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나눔 공감 프로젝트 사생대회 등을 추진한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청년 보석장인 지원공간 입주 3팀 모집

익산시가 보석장인을 꿈꾸는 청년의 창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장의 기회가 될 공간을 제공한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영등동 귀금속보석공업 단지 내 창업지원 공간인 '생산의 풍경'에 처음으로 입주할 3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정 문화도시 특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생산의 풍경'은 창업공간 3개와 공동작업실, 공동회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첫 입주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신청 자격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39세 이하 청년 중 보석 제조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2년 이내의 기업 대표다.

시는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창업 실무 교육이나 국내·외 박람회 참석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다.

시는 월 30만 원씩 1년간 최대 36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과 중소기업, 문화예술, 임·어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한 만 18~39세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익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해당 지원금은 익산뿐만 아니라 전북 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업종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2월 8일까지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ttd.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 누리집(jb2030.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